



하나금융투자

제1회 中주식 기업분석 대회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13일 하나금융투자 본사 3층 한마음홀(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제1회 중국주식 기업분석 대회' 시상식 및 2018년 하반기 중국 경제·증시 전망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1회 중국주식 기업분석 대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외 주요 대학 총 66팀이 참가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실력을 뽐내는 향연을 펼쳤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및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심사위원단이 분석기법, 종목선정, 보고서형식, 정성평가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총 6개의 수상팀을 최종 선정했다. /김문호 기자



유안타증권

총 200억원 흥런 ELS 4종

유안타증권은 오는 10일까지 상품별로 각각 수익성 높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춘 유안타 흥런 추가연계증권(ELS) 4종을 총 2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흥런S ELS 제4053호'는 조건 충족 시 상환되는 수익률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 만기 3년, 조기 상환 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코스피200(KOSPI200),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8%(36개월) 이상일 때 연 7.0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2%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21.00%(연 7.00%)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손업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개편 컨설팅 착수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9월 전자증권제 도입을 앞두고 오는 11월 말까지 금융전문 컨설팅사로부터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 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 등록기관의 수수료 체계 비교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자증권 수수료(안)를 마련한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증권법 시행에 맞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손업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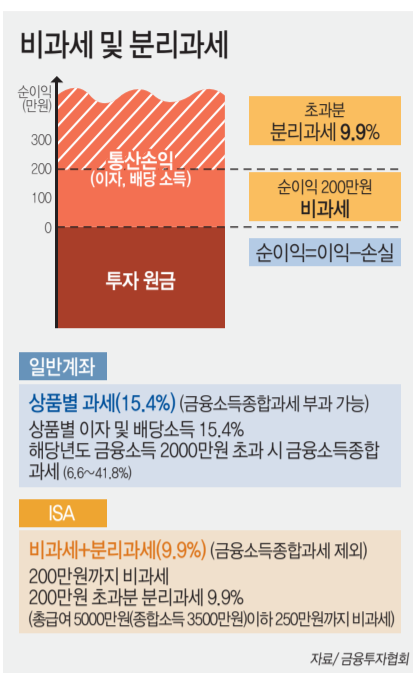
세금폭탄 언제 또?... 절세상품에 '시선집중'

ISA·IRP 등 안정적 상품 관심 쏠려 비과세 투자 상품으로 ISA 급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논란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투자자들은 언제 금융소득에 세금이 붙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더욱이 증시 하락장과 맞물려 당분간 투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안정적인 절세 상품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당국 역시 올해 연말 일몰이 예상됐던 ISA의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는 등 국민 절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5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증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증세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금융소비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여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늘어난 과세 대상자 중 고령층이 포함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



당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재정특위가 정부의 자문기구인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논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언제 다시 과세 논의가 나오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비과세 투자 상품으로 ISA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로 일몰하는 ISA가 2~3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다시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의 연장과 비과세 범위 확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말이나 8월 초쯤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ISA의 연장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총급여 5000만원 초과는 일반형 ISA(5년 만기), 이하는 서민형 ISA(3년 만기)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면제되는 절세 상품이다. 이자소득이 200만원을 웃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특히 일반형 가입자가 ISA를 통해 2000만원을 벌면 180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비 종합과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만약 일반 투자상품을 통해 2000만원을 벌었다면 나머지 소득과 합산해 최대 46%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처럼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마

지노선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IRP 역시 대표적인 절세상품임과 동시에 공제상품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PB(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계좌 내에서 운영하는 상품의 이자와 배당수익은 인출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심지어 55세 이후 인출 시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는다. 절세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P에 넣은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매년 16.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정부가 각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테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수탁고 3兆 돌파

2016·2017년 수탁고 증가율 1위 부동산·벤처 등 투자자산 확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도법인의 수탁고가 3조원(3조3000억원·2000억 루피)을 돌파했다.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현지 운용사 가운데 수탁고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8000억원 넘게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체 40개 운용사 중 수탁고 규모는 16위다.

2006년 11월 설립된 인도법인은 현재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로 직접 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글로벌 자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산운용사가 인도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합작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인도시장의 성장성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지속했다. 전체 인력

130명 중 1명만이 한국인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서치 역량을 융합하며 차별화된 운용사로 자리잡았다.

진출 초기 미래에셋은 리테일을 중심으로 주식형 펀드를 주로 판매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법인 전체 자산 중 80%가 주식형펀드며 전체 100만 계좌 중 절반 이상이 적립식으로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 자산 외에 부동산, 벤처투자 등으로 투자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인도 부동산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1000억 규모의 사모펀드를 설정했고 인도의 물류, 헬스케어 관련 벤처기업에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대표펀드인 '미래에셋이머징블루칩

펀드'는 지난 2일 기준 3년, 5년 수익률이 각각 59.35%, 287.28%를 나타내고 있다. 1조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인디아펀드' 또한 동기간 수익률이 각각 43.79%, 170.38%로 두 펀드 모두 3년 이상 운용 펀드 중 상위 10% 우량 펀드에 부여되는 모닝스타 최고등급인 5성 등급(5 Star)을 부여 받았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모닝스타 및 파이낸셜타임즈 베스트 매니저에 선정되기도 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의 닐리쉬 수라나 운용최고책임자(CIO)는 "인도는 지난 2~3년간 진행된 통합간접세(GST)와 화폐개혁, 은행 구조조정 등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며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에이블 어카운트' 출시 1년만에 7000억

KB증권 맞춤형 상품·수익률 요인

KB증권은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인 'KB 에이블 어카운트(able Account)'가 출시 1년만에 잔고 7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KB able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자산을 포트폴리오답아 거래·관리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 출시 당시 윤경은 KB증권 사장이 직접 1호 고객으로 가입하며 관심을 끌었다.

KB증권의 투자상품서비스(IPS) 역량을 총 집결해 탄생한 'KB able Account'는 연 초 약 2400억원을 시작으로 5월에는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가파른 잔고 증가세를 보이며 마침내 출시 1년만에 7000억원을 돌파했

다.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계 최저 수준의 최소가입금액 설정과 고객별 맞춤형 상품제공,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률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KB able Account'는 국내투자형, 글로벌투자형 및 펀드투자형의 기본 포트폴리오 외에 고객 성향별 자산배분형 11개 포트폴리오 등을 비롯한 총 22개의 세부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맞춤형 상품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거액 자산가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도 출시한바 있으며, 이어 6월에는 최소 가입금액 1000만원 수준의 지점운용형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하기도 했다.

/김문호 기자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2018 우수협력사 간담회'에서 한화건설 대표이사(왼쪽)와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왼쪽 열번째)가 최우수상을 수상한(쥬미호조경 김오성 대표이사(열한번째) 등)과 포즈를 취했다. /한화건설

한화건설, 동반성장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한화건설은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는 '2018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간담회를 통해 17번째 협력사와 소통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화건설은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 조성 및 운영자금 지원 등 올해 실시한 주요 동반성장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다. 또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35개 업체(▲최우수협력사 6개사 ▲우수협력사 27개사 ▲글로벌파트너사 2개사)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